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장학월보

2012  
제229호(통권448호)

# 3

- 장학특집 / 컨설팅장학
- 교육정보 / 이달의 교육기부



# 2012년도 경남 교육정책

##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교육기부운동 활성화
4. 진로 · 직업교육 내실화
5. 국토사랑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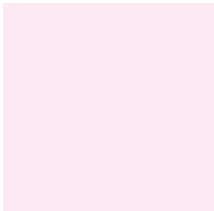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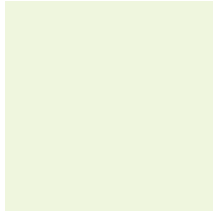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2. 3 제229호(통권448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교육 칼럼  
08 특집 /  
    컨설팅장학

- 경남교육, 학생이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 고영진
-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 변성규
- 컨설팅장학 정책 이해와 활성화 방안 / 박교선
- 경남의 컨설팅장학, 컨설턴트의 역할이 경쟁력이다 / 이지혜
- 담임교사의 학생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장학 활성화 / 유영원
- 교육현장의 변화를 선도하는 컨설팅장학 운영 사례 / 박소제
- 자율적 교육 성장을 위한 학교 컨설팅 / 김지혜
- 컨설팅장학을 통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신남철

24 좋은 수업 다지기

- 협동학습과 수준별 수업으로 행복한 영어교실 / 조순금
- 텔레비전 광고 읽기와 논술 수업 / 김정만
-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문화 즐기기 / 김민정

31 교육정보

- 이달의 교육기부

32 특색교육현장을 찾아서

- 3 fun! 안명교육 4.0 / 서점선

34 명품학교, 명품교육

- 다양한 참살이 체험학습을 통한 창의·인성함양 / 윤영삼
- 학교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사례 / 김현구
- '대운학부모 일본어 교실' 운영과 평생교육 / 이종현
- 수업 컨설팅의 새로운 도전 품앗이 교수·학습활동 / 김종인
- 100년 직장·기술 보장 마이스터교 교육 / 이효환

48 전문가초대석

- 페이스북에서의 그룹 활용하기 / 최재용

51 교육미담 사례

- 아름다운 동행 / 김순희

53 참여마당

- 교 원 - 깨어진 옹기시루 / 장현재
- 학부모 - 저마다의 빛깔로 꿈을 키우는 학교 / 정영선
- 학 생 - '나쁜 어린이표'를 읽고 / 김서민

59 향기나는 서가

- 새학기를 시작하는 작은 실천 단·사·리 / 강윤정

61 지상갤러리

- 말 ♪ 말 ♪ 말 ♪ / 송정희

▶ 표지사진 - 오경호(충무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4월호 모집 기간 : 2012년 3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의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a href="http://lms.gnedu.net">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2년 3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이국식 • 편집주간 : 교육과정과 장학사 박정화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 경남교육, 학생이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교육가족과 그리고 도민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시작은 가슴 뛰는 설렘입니다. 3월은 신입생과 재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적을 이룰 것 같은 꿈을 꾸게 합니다.

2012학년도에도 경남교육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전개하고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내에서 2개교를 제외한 전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고, 전국최초로 초·중·고등학교에 대안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여 설립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출범합니다.

주5일제수업은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계발,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5일수업제로 저소득층 자녀들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당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돌봄교실, 토요스포츠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대안교실 운영은 학교폭력예방과 함께 학업중도탈락학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는 경남교육에 대한 바람입니다. 경남에만 연간 3,000 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부적응입니다. 현실





적으로 부족한 대안학교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안교실은 맞춤형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들에게 내일을 열게 하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이 3월 8일 출범합니다. 미래재단은 경남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이 주관하여 설립한 교육기부 재단입니다. 김연아, 박지성, 조수미 등 글로벌 인재의 육성은 학교나 가정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재단은 경남인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재단 운영과 시스템을 가동할 것입니다.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해 경남스틸 최충경 회장과 경남은행장, 봉림장학회, 한미음 병원장 등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미 기부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와 출향 인사, 많은 퇴직교원들께서 기부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주5일수업제 실시로 학생들의 더 많은 경험을 기대합니다. 제도의 안착 만큼이나 학생과 학부모가 제대로 적응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이 학생에게 성장의 시간이고 꿈에 다다른 순간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실, 그 속에서 원하는 공부에 빠져있는 학생을 상상해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3,000여 명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포기가 아닌 성취라는 희망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미래세대에게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 기성세대인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경남의 학생들에게 기적을 만드는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교육만이 희망이다’라는 신념으로 경남교육 정책을 펼쳐갑니다. 희망은 곧 꿈입니다. 꿈을 갖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냅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경남교육의 비전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2012. 3.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 01 남강초등학교 여자축구부 창단식 참석
- 02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03 2012. 학교장 임명장 수여
- 04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참가
- 05 학부모 학교 참여 감사패 전달
- 06 학생 통일안보교육 업무협약 체결



06



07



08



10



09



11

- 07 김해교육지원청 - 학력향상연수회
- 08 통영교육지원청 - 직업체험캠프
- 09 경남유아체험교육원 - 2012년도 운영계획 협의회
- 10 김해도서관 - 책 읽는 행복한 우리집 헌판 수여
- 11 낙동강학생수련원 - 2012. 교육과정 업무 협의회
- 12 창원도서관 - 2012. 평생교육기관 명강사 육성 연수



12



##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변 성 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과장

저출산에 따른 인구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전국적인 학령인구가 2011년 대비 2020년에는 초등학교는 17%, 중등학교는 31%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경남의 경우에도 초등학교는 2013학년도까지 매년 10,000여명 이상의 학생이 감소하고, 중·고등학교의 학생수도 2014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농산어촌지역 및 구도심지역의 소규모학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복식학급 편성·운영 및 방과후 학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상치 교사 배치·운영, 교과교실제 도입 등 교육선진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할 수 없어 정상적인 학교 교육기능의 상실과 함께 심각한 교육결손이 발생하여 더 큰 교육격차의 심화가 우려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도교육청에서는 1982년부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2012. 3.1 현재까지 총 535개교를 통·폐합하였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정책목표가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절감 측면만이 부각되거나, 지역문화의 구심점역할을 하는 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한 ‘농산어촌 지역 황폐화’ 주장과 결합하여 교육적 차원의 목표가 희석된 채 학부모 및 지역주민, 동창회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경우이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러한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중·고등학교 2~3개 정도를 지역여건에 따라 통·폐합 적정 규모화하여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통폐합 본교 등 거점고등학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기숙사 및 교직원 관사 신축비 등 최상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학부모 희망할 경우 기숙사 신축비용과 각종 국가 시책 사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둘째,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한 통학구역 조정이다.

소규모학교의 경우 통학구역 및 중학구 등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여도 갈 수 없는 실정임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복식수업 및 비전공교사제 운영 학교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를 조정하여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운영하고, 통학구역이 확대된 지역의 학생이 본교로 전·입학할 경우 장거리 통학에 따른 통학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교’는 통폐합 제외 대상이었으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통폐합을 원할 경우 ‘1면 1교’라도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영세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추진이다. 우리도내 학생수 60명이하 영세 사립학교가 많이 있지만(11개교로 전체 사립중고 154교의 7.1%), 법인해산 장려금 관련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영세사학의 자발적인 해산 유도를 통하여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이전·재배치 추진이다.

구도심지역은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개발지역에는 학교 신설요인이 발생하는 등 학생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기존 도심학교를 개발지역으로 이전·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은 모든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에서도 교육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육성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2011.3월에 적정규모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개교한 충북에 있는 속리산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모든 이의 우려와는 달리 불과 1년만에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발전하여 물려드는 학생들의 수용을 걱정하시는 교장선생님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 싶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컨설팅장학 정책 이해와 활성화 방안

- 컨설팅장학, 학교 및 교원 자기발전의 기회 -



박 교 선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정책 등도 변하게 됩니다.

장학의 패러다임 역시 교육청의 지원과 학교 및 교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지도나 감독 위주에서 지원과 자발성 중심의 컨설팅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교육청의 명칭 자체가 2010년 9월 1일자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장학이 과거에서처럼 교육청에 의해 주도적·정기적·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학교와 교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요구에 따라 교육청에서 연결해 준 전문가에 의해 컨설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학교 또는 교원 개인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내어 스스로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충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컨설턴트로 지정된 분들은 다른 사람을 컨설팅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컨설팅장학은 컨설턴트와 의뢰하는 측의 명실상부한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장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敎學相長 :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또는 가르치는 측과 배우는 측이 서로 성장한다.

## 1. 컨설팅장학의 도입 배경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09.01.부로 전국 모든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지원청이 이름 그대로 학교에 대해 지원 중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추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핵심 기능은 장학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설팅 성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2. 개념

컨설팅장학이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컨설턴트)가 단위 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이 요청한 문제와 과제의 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장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컨설팅을 의뢰하는 측(학교 또는 교사)이 주체가 되어 컨설턴트와 동등한 위치에서 문제나 과제 해결을 위한 조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 요청한 문제가 해결되면 종료되기 때문에 1회 또는 몇 회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컨설턴트는 의뢰하는 측의 희망에 따라 1명 또는 몇 명이 지원됩니다.
- 시간과 방법 및 장소는 의뢰인과 컨설턴트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수업을 공개할 필요도 없으며, 컨설턴트가 민간인이라 하여도 장학사가 반드시 동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 컨설팅장학 영역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입니다.
- 컨설팅 당일에 과거의 장학에서처럼 공식적인 절차와 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됩니다.
- 컨설턴트는 교수·학습, 생활지도, 교육과정, 학교·학급경영 등 분야별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장학사는 컨설턴트이자 컨설팅 매니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장학의 개념이 컨설팅장학으로 전환되었으나,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의 학교에 대한 일방적 장학이 금지된 것은 아님. 다음의 근거에 의해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특정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 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3. 컨설팅장학 요청 요령

컨설팅장학은 초등·중학교·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장학 담당 장학사에게, 전문계 고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해당 업무 담당장학사에게 신청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라도 교육지원청에 요청해도 됩니다.

컨설팅장학을 요청할 때에는 문제나 과제를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지도 중 학생 가출에 대한 문제인지, ADHD에 관한 문제인지,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교측의 조치에 불응하는 문제인지, 수업 중 잡지는 학생에 대한 지도 문제인지, 음주나 흡연학생에 대한 지도 문제인지 등 자세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4. 컨설팅방법

컨설팅장학을 요청하면 교육청에서는 요청 내용을 분석한 후 전문가(컨설턴트)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지정된 컨설턴트는 요청한 측(학교 또는 교원)과 문제가 무엇인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상의하면서 컨설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경남의 컨설팅장학, 컨설턴트의 역량이 경쟁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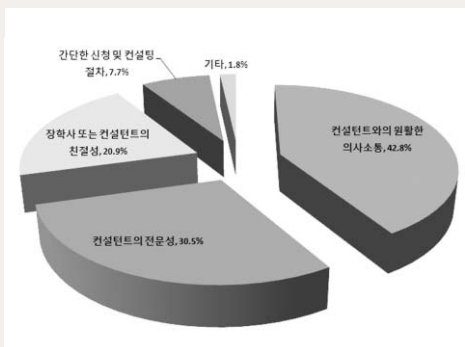


이 지 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교수

2010년 9월 1일자로 178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기능 개편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장학인 담임장학이 컨설팅장학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컨설팅장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의 조직 문화를 학습 조직으로 새롭게 변모시켜, 단위학교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학교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컨설팅장학 현장 안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 또한 컨설턴트 연수, 우수사례 확산, 컨설팅장학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의뢰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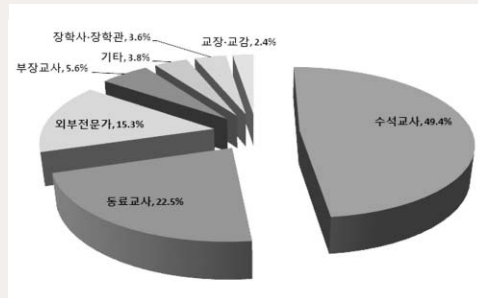
이와 같은 노력은 의뢰인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그 결실을 맺고 있다.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2011년 12월에 실시한 의뢰인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남교육청 관내 의뢰인들의 컨설팅장학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09로 전국 평균 4.00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컨설팅을 받은 후 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325명의 의뢰인의 인식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컨설턴트와의 원활한 의사소통(42.8%), 컨설턴트의 전문성(30.5%), 장학사 또는 컨설턴트의 친절성(20.9%), 간단한 신청 및 컨설팅 절차(7.7%), 기타(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경남교육청 관내 의뢰인들의 만족도 수준은 거의 컨설턴트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 컨설턴트는 누가?

경남교육청 관내 의뢰인은 어떤 사람이 컨설턴트로 활동해줄기를 원할까? 이에 대한 338명의 의뢰인 인식조사 결과, 수석교사(49.4%), 동료교사(22.5%), 외부전문가(15.3%), 부장교사(5.6%), 기타(3.8%), 장학사·장학관(3.6%), 교장·교감(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의뢰인이 컨설팅장학의 중요 요인으로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꼽고 있으나, 장학사·장학관 및 교장·교감과 같이 내용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컨설팅장학을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컨설턴트의 역량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 컨설턴트의 역량

컨설턴트는 어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까? 전문성이 뛰어난 컨설턴트는 화려한 경력이나 수상 실적 등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의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전문성과 방법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다. 즉, 컨설턴트는 컨설팅내용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컨설팅 원리 및 방법에 대한 지식 등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능력과 의뢰된 문제해결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내용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방법전문성을 위한 Tip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컨설턴트의 전문성

1.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의뢰인을 대하라.
2. 다양한 언어적 반응기술을 획득해서 능숙하게 사용하라.
3. 의뢰인의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듣지 말고, 정서적 내용까지 모두 들으라.
4. 비난하거나 나무라지는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염려되는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어라.
5. 의뢰인의 대답이 짧은 한두 마디의 말로 한정되지 않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을 하라.
6. 필요시에는 컨설턴트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과 나누어라.
7. 래포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라.
8.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라.
9. 자신감 있게, 열정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라.
10. 의뢰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컨설팅에 임하라.

##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턴트의 전문성

1. 성공적인 컨설팅을 이끌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라.
2. 학교경영컨설팅을 위해서는 조직이 당면한 문제와 그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 진단 기법을 활용하라.
3. 멘토링을 활용하라. 컨설턴트인 멘토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능력요건(학습촉진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진실한 마음과 열정, 코칭 기술, 조직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 풍부한 내용지식과 경험 등), 성격요건(호의성, 개방성, 감정적, 안정성, 성실성), 감성 역량(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동기부여능력, 타인의식능력, 타인관리능력)이다.
4. 단기적인 프로젝트나 성과를 위해서는 코칭을 활용하라. 컨설턴트는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관찰하고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한다.
5. 의뢰인이 심리적 치유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활용하라. 의뢰인이 심리적 갈등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6. 의뢰인의 동기를 높여주어라. 컨설턴트는 의뢰인이 직접 과제의 종류와 해결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키며, 의뢰인을 배려하고 존중하여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 내재적 동기를 높여주어야 한다.
7. 컨설팅 시작 단계에서는 문제를 잘 정의하고,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라. 문제가 정 의되면 의뢰인이 실행가능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전략을 선택하도록 하라. 컨설팅을 진행하며 과정에 도입된 전략이 효과적인지 평가해보고 필요하다면 컨설턴트와 합의 후 수정하는 것이 좋다.

이상과 같이 컨설턴트가 내용전문성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능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전문성도 고루 갖추게 된다면 의뢰인에게 가장 신뢰받는 단계가 될 것이다. 의뢰인이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될 때,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컨설턴트는 역량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담임교사의 학생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장학 활성화



유 영 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 ▣ 목적

- ▶ 단위학교의 당면 과제 해결 방안 모색 및 현안 해결 지원을 통한 신뢰받는 교육 풍토 조성
- ▶ 교실수업개선과 교사들의 수업 기술력 향상을 통한 수업전문성 신장
- ▶ 단위학교(유·특 포함) 평가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 해결 지원

## ▣ 영역

연번	영역	주요 내용	비고
1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유치원, 특수)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li> <li>• 주5일수업제 등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li> <li>• 창의적 체험활동프로그램 지원</li> <li>• 학교 교육과정 실태 분석</li> </ul>	
2	교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학습 전략 및 수업, 평가 컨설팅</li> <li>• 교실수업개선(학교, 교사)</li> <li>• 교과커뮤니티 운영</li> <li>•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방안 지원</li> </ul>	
3	학부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연수 및 학부모 동아리 지원</li> <li>•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방법</li> </ul>	
4	교원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학습 능력 개발</li> <li>• 교원 자질 및 전문성 향상 연수</li> <li>•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 순회교육, 직업교육관련 등의 전문성 향상방안</li> <li>• 평가도구 개발, 학급경영 등</li> </ul>	
5	인성·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생활(학교폭력) 지도</li> <li>• 진로지도 협의·정보교류</li> <li>•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상담기법</li> <li>• 생활인권 관련 컨설팅</li> </ul>	
6	학교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협의 및 교직원 조직 관리</li> <li>• 회계 및 시설 관리</li> <li>• 지역사회 연계 협력 지원</li> </ul>	
7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색과제(책 읽는 학교,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li> <li>• 교육 정책 전반</li> </ul>	



## ▣ 방법 및 절차

### ▶ 학교 중심 컨설팅장학

- 자기문제 진단 후 계획 수립→장학요원(컨설턴트) 선정→컨설팅활동→피드백 등 협의 및 결과 정리 : 전 과정을 학교 및 교원 자율적인 컨설팅장학 전개
- 지역교육청 주도 컨설팅장학과 병행하여 교내 컨설팅장학 활성화

### ▶ 지역교육청 중심 컨설팅장학

- 지역교육청에서 컨설팅장학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장학 지원 계획을 수립 : 학교컨설팅, 컨설팅장학 등
-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장학 행·재정적 지원

## ▣ 대상 및 시기

### ▶ 대상

- 컨설팅장학을 요청한 학교(유치원) 또는 교원  
(학력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개선에 중점을 두는 교내 컨설팅장학 활성화)

### ▶ 시기

- 수시(단위학교 신청 시)
- ‘요청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장학 지원(연중)

## ▣ 지역교육청 ‘컨설팅장학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 ▶ 센터장 : 교육장

### ▶ 지원단 구성(권장) : 지역교육청별 유3명, 초10명, 중등15명, 특수 2명 이상

- 소규모 시·군에서는 인근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합동 지원단 구성 권장
- 지역교육청별 지원단 자체 또는 합동 연수회(워크숍) 실시
- ▶ 컨설팅장학 지원단 구성 : 장학위원(컨설턴트), 컨설팅장학 관리자(교육전문직 등), 학교 관계자(교장, 원장/교감, 원감) 등
- ▶ 장학위원(컨설턴트) 구성 : 장학주제와 관련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전문직, 교원(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사, 수석교사, 수업명사, 학습연구년제 교사 등), 교과교육연구회, 퇴직교원, 외부전문가, 대학교수, 교육행정공무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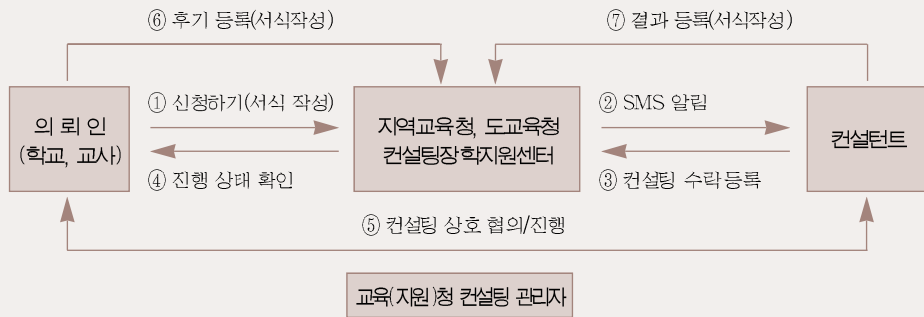
### ▶ 컨설팅장학 지원단 구성 절차

순서	절차	내 용	비고
①	공모 계획 발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및 지역교육청	2월
②	지원(지원자격)	•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교사 및 교감(교육전문직) • 지역교육청 교육전문직은 반드시 포함	2월
③	선 발	• 교육과정과 및 지역교육청에서 공모·심사를 거쳐 선발	2월

④	워크숍(연수)	• 컨설팅장학지원단 장학지원방법 워크숍 실시	3월초
⑤	위원 위촉	• 경상남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장학지원위원으로 위촉	3월초
⑥	운영관련 연수	• 컨설팅장학지도 대상교 교감 및 장학지원단 대상 사전 연수	3월초
⑦	장학지원활동	• 컨설팅장학활동 실시	3월~11월
⑧	결과 평가	• 도교육청 교육과정과 및 지역교육청	12월

▣ 온-오프라인 컨설팅장학

- ▶ 온라인 지원 시스템(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컨설팅장학 실시
- ▶ 온라인 컨설팅장학의 절차



▶ 오프라인 컨설팅장학 절차

- 학교→지역교육청에 오프라인으로 컨설팅 요청
- 영역별, 학교급별 컨설턴트 지원 요청(컨설팅장학 지원팀 구성)

▣ 컨설팅장학 활성화 방안 수립

- ▶ 장학 및 컨설팅장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연수회 개최(교육청)
  - ※ 지역교육청별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 의뢰인이 만족하는 다양한 영역의 자율적인 컨설팅장학 참여 방안 강구
- ▶ 컨설팅장학 결과 우수학교 및 유공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컨설턴트 확보 및 우대 방안 강구

- ▶ 학습지도연구대회 입상교사, 장학요원, 수석교사, 수업명사, 영어과(영어수업능력 특별교사 및 우수교사) 적극 활용
- ▶ 컨설턴트 활동 경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인적 풀 확보
- ▶ 컨설턴트로 활동한 교원에 우대 방안 강구로 컨설턴트 활동 동기 부여
- ▶ 7개 영역에 대해 지역교육청별 컨설턴트를 확보하되 지역교육청 교육전문직은 반드시 컨설턴트 또는 컨설팅장학 관리자로 활동

※ 참고: 2011. 경상남도교육청 컨설팅장학 매뉴얼(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과정과 자료실 57번 탑재)

# 교육현장의 변화를 선도하는 컨설팅장학 운영 사례



박 소 제  
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

2011년, 기존장학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컨설팅장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교육현장에서는 컨설팅장학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자발성에 기초한 지원 중심의 컨설팅장학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교원의 자발적 요청과 의뢰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제공하는 컨설팅장학은 무엇보다 컨설팅장학으로의 인식 전환과 컨설팅장학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우수 컨설턴트 확보 문제 등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2011학년도 컨설팅장학 개요와 안착을 위한 제언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1. 2011. 컨설팅장학 추진 개요

### 가. 기반구축

- 1) 찾아가는 컨설팅장학지원팀 구축·운영
  - 컨설팅장학을 희망하는 학교별 179개 장학지원팀 구성·운영
    - 장학관리자 1명과 컨설턴트 1명 이상
    - 컨설팅장학 인력풀 구성 : 컨설턴트 119명(유 8명, 초·특 51명, 중·고 60명)
- 2) 온라인 컨설팅 장학시스템 구축
  - 2011년 10월 오픈, 수시 컨설팅 가능 (<http://consult.educw.go.kr>)
- 3) 컨설턴트 전문가 연수 : 10회, 1,862명
  - 컨설턴트 양성과정 연수 개설 :
    - 연 2회, 657명, 30시간 이상 집중 연수 이수
    - 수업컨설팅과 수업디자인 과정 등 10개 과정(657명)
  - 컨설팅장학 홍보 연수 : 8회, 1,205명



<컨설팅장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나. 컨설팅장학 운영 현황**

- 영역 : 7개 【 교수학습,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인성·진로, 학부모교육, 학교(학급)경영, 교육정책 】
- 학교급별 현황

구분 \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컨설팅의뢰 학교수	97	39	23	159
컨설팅실시 횟수	113	119	41	273
컨설팅 받은 교원수	2,635	467	272	3,374

**다. 컨설팅장학 홍보 강화**

- 컨설팅장학지원센터홍보자료(리플릿) 제작 배부 : 10,000부, 전 교원
- 컨설팅장학 사례 모음집 발간 보급 : 600부, 전 단설유·초·중·고·특수학교)
- 수업컨설팅 영상자료(CD) 배부·활용 : 700장, 전 초·중·고등학교

**라. 2012. 컨설팅장학 발전방향 모색**

- 컨설팅장학관리자 난상토론 개최 : 2012.2.3. - 2.4.
  - 참석자 :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35명, 도교육청 초·중등 장학담당 장학관, 장학사 4명
  - 내 용 :
    - ▷ 우수 컨설턴트 확보를 위해
      - 각종 연구대회 실적 및 장학능력 검증
      - 우수 컨설턴트의 자발적 참여와 현장 추천제 도입
      - 컨설턴트 활동 평가 결과 재 지정에 반영
    - ▷ 컨설팅장학 의뢰자의 자발적 요구 활성화를 위해
      - 컨설팅장학 실적 누가 기록 및 연수 인정 방안 강구 (횟수를 30시간, 60시간 단위의 연수 인정)
      - 컨설팅장학 의뢰자의 자가 연수, 근무지 외 연수 편의 제공
      - 컨설팅장학 의뢰자 연수활동 경비 지원책 강구
    - ▷ 컨설팅장학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연수 확대를 위해
      -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확대
      - 학교 관리자 연수 확대 - 의뢰자 대상 연수 실시
      - 컨설턴트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2. 2012. 컨설팅장학 안착을 위한 제언**

컨설팅장학 도입 3년째, 컨설팅장학의 성공은 무엇보다 의뢰자의 자발적인 요청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에 따라 의뢰자의 자존감을 살리면서 장학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컨설팅 형태, 컨설턴트와 의뢰자간의 대등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교단 문화 만들기, 컨설턴트의 장학기법 제고, 컨설턴트의 수업결산 방지, 컨설턴트 수당 지급의 적정성 확보와 의뢰자에 대한 연수비용 지원(필요한 경우) 검토가 요구된다.

2012학년도에는 이런 점이 개선되고 교내 자율장학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온·오프라인 컨설팅장학이 더욱더 활성화되어『학생중심·현장중심』창원교육 구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자율적 교육성장을 위한 학교 컨설팅



김 지 혜  
의령 칠곡초등학교 교사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장학활동과 현직연수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학교 컨설팅’이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전면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학교 경영과 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조직하는 전문적인 자문활동으로서의 학교 컨설팅이 학교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본교에서는 학교 컨설팅 도입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교내 자율연수와 구성원의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학교 컨설팅의 주제와 방향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과제의성	컨설팅 주제		시기	지원주체(컨설턴트)
교과 교육 활동	수업이론 및 기법훈련을 위한 수업컨설팅	‘교실 속 행복’을 위한 수업 컨설팅 : 외국어 수업의 특성화에 맞는 효율적인 TEE 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 및 전반적인 수업전략 수립	6.13~6.27 ※ 공개수업 참관 및 협의회 6.24(목)	의령교육지원청 (김○○, 오○○)
		자율적 교육성장을 위한 교내 팀별 수업컨설팅	6.13~7.2 수업공개주간	칠곡초등학교 (전교원)
교과 과정 편성 운영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오케스트라 사업(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진행 및 성과	8.24(수) ※ 현장실사	경상남도교육청 (김○○, 하○○)
		학교 특색교육활동을 반영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 및 재량활동·특별활동 통합의 실제	11.14~12.3 ※ 오프라인 협의회 12.1(목)	의령교육지원청 (김○○, 김○○, 김○○)



### 1. '교실 속 행복'을 위한 수업 컨설팅

수업 컨설팅의 의뢰자는 효율적인 읽기·말하기 수업을 디자인하고 모의수업을 통한 동료 간 수업 컨설팅, 컨설턴트와 의뢰자 간의 온라인(전화상담, E-mail 등) 컨설팅, 공개수업 참관 및 수업협의회 등의 과정을 통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지시, 감독, 통제, 평가의 특성이 강한 수업장학을 넘어 자율, 조언, 자문, 수평의 특성을 갖는 수업 컨설팅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2. 자율적 교육성장을 위한 교사 중심의 교내 팀별 수업 컨설팅

'자율적 교육성장을 위한 교내 팀별 수업 컨설팅'은 모든 교사가 의뢰인과 컨설턴트가 되어 수업을 공개하고 컨설팅에 참여함으로써 교원 상호간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는 기회로 활용한 '교사 중심의 수업컨설팅'이다. 창의적인 자료나 특별한 발표방법, 모둠토의 방법, 학생 집중 놀이 등 동료교사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한 가지씩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공개하고 다른 교사들은 수업의 설계, 목표의 진술, 교수 기술, 발문, 평가활동, 학습 자료의 활용 등 각 요소들에 대한 상호 컨설팅을 통해 수업의 노하우를 쌓는 발전적인 기회가 되었다.

### 3.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올해 우리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사업인 '2011.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과 연계하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및 교과(군)과 통합한 교육과정으로 '학교 오케스트라를 위한 현악기 연주' 시간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올해 처음 도입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예술교육 인턴강사를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자원인사제의 운영방법,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악기구입, 시설 및 환경조성 등의 내용적 측면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해 학교의 특색교육활동을 반영한 보다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해, 행복한 교실을 위한 교사의 눈물겨운 노력과 변화의 과정을 담은 EBS 다큐프라임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라는 다큐멘터리를 벽찬 감동으로 시청한 기억이 있다. 컨설팅을 의뢰한 7명의 선생님은 교육철학, 수업코칭, 교육심리 전문가와 함께 교사심리훈련, 24시간 밀착 코칭, 집단 상담 등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수업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이끄는 진정한 비밀을 찾아가게 된다. 프로그램의 이름만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참가자의 마음과 행동, 주변상황이 놀랍게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적절한 처방을 받으면 누구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고 진정한 수업 컨설팅이란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닿았다. 안타깝게도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컨설팅에 대한 솔직한 인식도 조사를 보면 '학교 컨설팅 장학'이 장학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다. 또다시 수업장학에서 컨설팅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교육활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지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폐

쇄적, 개인적, 고립적인 우리의 수업문화는 자발적인 의뢰를 주저하게 한다. 과거에 실시해오던 기존의 장학을 탈피하고 학교 컨설팅이 추구하는 자발성, 전문성, 전문성, 학습성의 가치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도기술을 갖춘 컨설턴트 인력풀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의뢰하면 문제해결 지원이 쉽다는 컨설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설팅을 의뢰하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컨설팅 계획서, 평가서, 보고서 등 보고문서와 교육지원청 및 학교평가에 학교 컨설팅 횟수를 정량평가하는 실적 위주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학교 컨설팅 활성화에 마음을 열기 어려울 것이다.



# 컨설팅장학을 통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신 남 철  
창녕 영산중학교 교사

## I. 필요성 및 목적

좋은 수업을 열망하는 교사들은 전문 지식 기반을 갖추고 교과 내용을 학생들의 이해를 전제로 변환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컨설팅장학을 통해 교수·학습력 신장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 II. 운영과제의 실행

### 1. 컨설팅장학을 위한 기반 조성

가. 컨설팅장학단 구성

컨설팅장학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교내 컨설팅장학단, 수석교사 컨설팅장학단, 부산대학교 컨설팅장학단으로 구성하였다.

나. 컨설팅장학 연수 실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EBS 방송 프로그램인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시청 자료를 활용한 좋은 수업 방법’, ‘컨설팅장학의 이해’, ‘컨설팅장학의 방법과 실제’, ‘수석교사들의 컨설팅장학 활용 방안’ 등 컨설팅장학 관련 다양한 주제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 2.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컨설팅장학 프로그램 운영

가. 자기 장학 프로그램 구안·적용

자기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자발적 역량 제고를 위해 자기 장학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였다.

## 나. 동료교사의 컨설팅장학

### 1) 교과별 동료교사 컨설팅장학

전 교사가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의뢰인이 되어 수업 공개를 통하여 동료교사에게 컨설팅장학을 받고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 2) 명품 수업교사 만들기 컨설팅장학

학습지도연구대회에 참가하는 교사에 대해 명품 수업교사 만들기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지도연구대회에서 기술·가정과 교사가 1등급을 받았다.



## 3.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컨설팅장학 프로그램 운영

### 가. 창녕교육지원청 컨설팅장학지원센터를 이용한 온라인 컨설팅장학

자기 수업 분석을 통하여 '좋은수업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다.

### 나. 수석교사의 컨설팅장학

수석교사에게 본교 교사들의 수업 동영상 자료 및 학습지도안과 컨설팅장학 의뢰서를 기저로 수업 전략에 대해 컨설팅장학이 이루어졌다.



### 다. 부산대학교 컨설팅단에 의한 컨설팅장학

부산대학교 장학단에서는 수업 내용을 직접 관찰하며, 동영상 촬영하고, 수업 후 학생들과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III. 결론

교사의 수업의 질 제고라는 실천적 노력의 결과 먼저, 동교 교사 컨설팅장학과 창녕교육지원청 컨설팅장학센터의 온라인 컨설팅장학으로 좋은수업이 이루어져 즐거운 학교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석교사와 부산대학교 컨설팅단의 컨설팅장학으로 재미와 감동을 주는 교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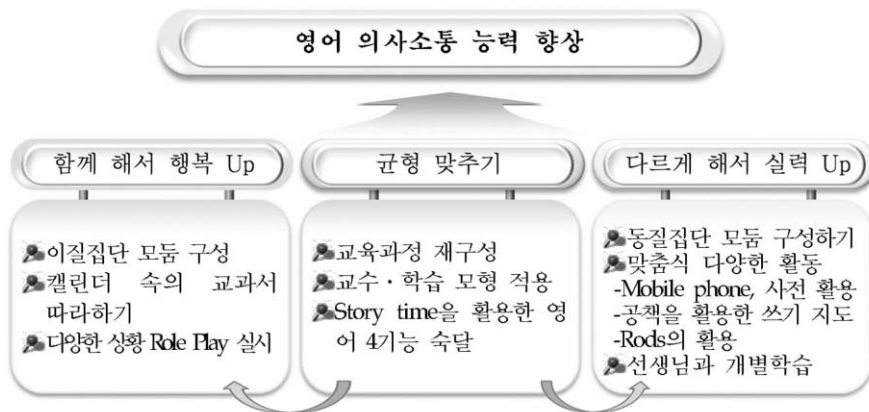
# 협동학습과 수준별 수업으로 행복한 영어교실



조 순 금  
양산 중부초등학교 교사

단계형의 교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영어과에서 학생들은 선개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고 각기 다른 수준을 가진 학생들의 지도에 교사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교실현장에서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동학습과 수준별 수업이 함께 하는 교수·학습전략을 세워서 실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수업 전략 큰 그림 그리기



## 2. 함께 해서 행복 Up 전략

수준이 다른 친구들이 서로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도우며 배우는 일련의 과정에서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갔다.

### 가. 이질집단 모둠 구성

각 단원의 1,2차시의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는 서로가 어울려 학습할 수 있도록 이질집단의 모둠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 나. 캘린더 속의 교과서 따라 하기

교과서 속의 전 단원 주요 차시 내용을 분석한 대화 글과 문장을 대본 형식 탁상용 캘린더를 활용하여 제시함으로써 문자를 통한 학습활동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 다. 다양한 Role Play 및 이구동성 게임





듣고 말하기는 Role Play로 진행하여 실생활 영어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낱말 카드를 활용한 이구동성 게임은 3,4차시의 읽기 쓰기 학습에 효율적이었다.

## 3. 다르게 해서 실력 Up 전략

### 가. 신호등 색으로 수준 정하기

진단평가, 교사의 관찰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3단계로 나누었다. 학생들과 친숙한 신호등의 색을 이용하여 빨강은 하, 노랑은 중, 파랑은 상으로 수준을 정하고 읽기, 쓰기, story time이 나오는 3,4,5차시의 활동에 동질집단 모둠을 형성하여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였다.

### 나. 이날로그식 전략

Story Book	영어공책	영한사전 (Mobil phone)	Story Rods & Reading Rods
			
이야기 만들기	공책을 활용한 쓰기	단어 찾기	Rods로 문장 만들기

## 4. 균형점을 찾은 행복한 영어교실

각 차시의 성격에 맞게 협동학습과 수준별 수업으로 전개한 결과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력과 협동으로 행복이 가득한 영어교실이 만들어졌다. 나아가 계속적인 input을 위한 교사의 끊임없는 자기연찬은 전문성 신장으로 이어졌다.



## 텔레비전 광고 읽기와 논술 수업



김 정 란

김해 진례중학교 교사

### 1. 매체와 교육의 만남

시대 변화와 기술의 변화는 매체의 진화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에도 e-learning, 전자 교과서, 스마트 교육, STEAM 융합 교육과 같은 주제와 맞물리면서 교육과 매체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학급 내 물리적 환경도 첨단 교육 기기 도입으로 매체 활용과 학습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국어과는 소통의 도구인 언어가 교육의 내용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매체의 특성에 따라 사용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하며 매체에 따라 언어의 파급력이나 효과가 달라지므로 학습자들의 실생활 속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매체를 수업 속에 적극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체의 국어 교육적 수용은 학습자에게 흥미와 교육적 의도를 동시에 접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교실 안에서 매체 수용이라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sup>1)</sup>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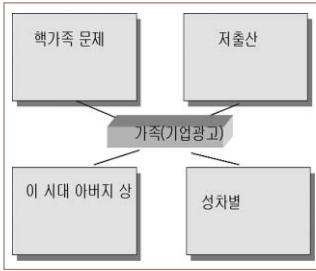
### 2. 텔레비전 광고 읽기와 논술교육

#### 가. 텔레비전 광고 읽기

모든 문제는 양면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관점의 차이로 인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논술은 학습자가 다양한 각도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쟁점이라 하는데 기존의 논술은 읽기 텍스트에서 쟁점 사항이 이미 정해진 경우가 많다. 다양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논술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1) 딱딱한 교실안에서 지루한 교과서를 억지로 보다가 항상 즐겨 보아왔던 매체를 활용하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오락과 교육이 결합된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교육은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적 의도는 살아있되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다.

광고 텍스트는 상징적이고 짧은 문구에서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논술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의 방법으로 협동학습 수업전략의 한 가지인 토론망 전략을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텔레비전 광고 읽기는 문자뿐 아니라 영상과 그림, 음향, 색채, 등 유기적 결합으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총체적인 형태 자체가 의미인 것이다.



< 논쟁 추출 예 >



< 기업 광고 장면 >



< 토론망 활동 장면 >

## 나. 토론망 활동

기존의 토론망 전략은 토론의 활성화 방안 중 찬성과 반대의 근거 마련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의 전 과정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는 '토론망 활동'이라는 명칭으로 변용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토론하기 전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적고 한 소집단에서 토론을 한 후 같은 논제를 가진 다른 소집단 간의 2차 토론을 함으로써 근거의 풍부함과 내용의 정교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리고 망(網)이라는 개념이 뚜렷하게 부각되기도 한다. 여러 학생들의 복잡한 인지 과정이 반영되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활발하게 됨으로써 지식 구성이 상호 교섭(transaction)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다. 유형별 논술

과거 논술의 경향은 기본형, 설명형, 찬반 비판형 등 단일한 유형으로 제시문을 주고 이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쓰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논술의 경향을 보면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해, 분석, 비판, 논증 등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다.

요약형 논술	반론형 논술	대안제시형	완결형
① 핵심어, 주장 근거 찾기 ② 유사한 주장, 근거 정리 ③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부연 설명+예시	① 주장과 근거 비판할 점 찾기 ② 정의의 적절성, 사실의 진위 ③ 비판에 대한 주장과 근거 쓰기	① 문제점 확인 ② 자신의 주장과 근거 ③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근거 마련하기 ④ 대안 제시하기	① 핵심 주장 세우기 ② 서론, 본론, 결론 구조에 맞게 쓰기 ③ 주장과 근거에 대한 부연 설명, 예시 준비

### 3. 현재의 공간을 교수·학습의 장(場)으로 확대

교수 전략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내적·외적 학습동기 유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 변화에 따라 논술식 사고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흥미롭게 다양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습의 장은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 환경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교사는 현재의 공간에서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아이템이나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있어야 한다. 영화나 만화, 드라마, 뉴스를 보면서 학생들의 삶과 연관 짓고 고민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교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를 공유하고 데이터화하고 모니터링하여 그 분야의 교육활동을 연구한다면 이미 연구자로서의 교사, 수업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문화 즐기기



김민경  
창원 토월유치원 교사

## 1. 명석을 펼치기 위한 목적

유아 발달에 적합한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을 유아들의 생활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에서 통합적으로 활동하여 우리문화와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유산, 우리 놀이, 우리 음식 영역과 소주제 활동을 계획하여 전통문화를 알아보며 우리문화에 대해 친밀감을 갖고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명석을 펼치기 위한 주춧돌

유아들에게 우리문화를 즐겁게 체험하고 우리문화 속의 지혜와 나눔, 배려 등을 전통문화 활동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가. 생활주제별 해당되는 전통문화를 우리 유산, 우리 놀이, 우리 음식과 같은 활동과 연결시키는 통합적 접근 방법이 가능한 우리문화 체험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나. 유아의 연령과 흥미를 고려하여 유아가 구체적 사물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중에서 유아들이 즐겁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 위주로 선정한다.

다. 가정과의 연계가 가능한 생활 속의 전통문화 체험활동 위주로 선정한다.

## 3. 명석에 펼친 활동(예시자료)

생활주제 : 동·식물과 자연	소주제 : 나물 캐기
사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 사진과 실물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유치원에 오면서 땅에 있는 풀들을 보았니?</li> <li>- 이렇게 생긴 풀을 본 적이 있니?</li> </ul> </li> <li>· 풀의 특성을 관찰하고 이름을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풀은 어떻게 생겼니?</li> <li>- 이 풀의 생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니?</li> <li>- 밖에 나가서 나물을 찾을 수 있겠니?</li> </ul> </li> </ul>

<p>체험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물 채집하기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li> <li>• 채집할 나물의 종류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li> <li>• 역할에 따라 나물을 채집한다.</li> </ul> 
<p>평가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집한 풀을 보며 활동을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물 뜯기가 어땠니?</li> <li>- 우리가 뜯은 나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li> </ul> </li> </ul> 

#### 4. 열매가 널렸어요

-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전통예술과 관련된 교육계획을 수립·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전통 관련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 전통문화와 관련된 유산, 놀이, 먹거리 등을 통해 유아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져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 유아의 일상생활과 전통문화 관련 활동을 연계시켜 통합적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통문화 활동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의 계기가 되었다.



#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개요

## ▣ 추진목적

- 기업, 대학, 출연 등이 운영중(예정)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 ▣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요

- 일시 : 2012. 3. 16~18(3일간), 10:00~17:00
- 장소 : 일산 킨텍스(제2전시관 10홀)
- 주최/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KBS
- 주제 : ‘아이들의 꿈과 세상을 잇는 교육기부’
- 참가기관 : 기업, 대학, 출연 협회·단체 등 120여개 기관
- 구성안 : 개막식(선포식), 전시체험, 어울림관, 부대행사 등



☞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홍보 포스트는 지역교육청과 학교로 배부됩니다.

## 3 fun! 안명교육 4.0



서 점 선

김해 안명초등학교 교장

3fun!의 3은 도교육청 특색과제인 노래, 운동, 책읽는 학교 실천을 위한 3가지 교육 활동이다.

3fun! 교육활동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창의와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으로 교육공동체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의미로 안명교육 4.0의 중요한 요소이다. 자본주의 4.0 시대의 교육은 성공한 사람이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도록 장려하되 낙오한 사람들을 북돋우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을 강조한다.

3fun! 안명교육 4.0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감동으로 다가설 수 있는 창의와 배려를 실천하는 따뜻한 안명교육이다.

### 1. 노래하는학교 - 장단치고 얼썩! 함께하고 절썩! 안하골 풍물 세상

1. **왜 풍물인가?** - “덩따 덩따 쿵기덕 쿵따, 선생님! 이렇게 치는 것도 휘모리 맞지요.” 장단을 열심히 배우던 한 녀석이 큰 발견이라도 한 듯 눈망울까지 반짝이며 의기양양해 한다. 본교가 속해 있는 안하골은 해마다 정월초가 되면 액을 물리치기 위한 지신밟기를 하면서 판굿으로 이어지는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풍물에 대한 지역 정서가 남다른 곳이다.
2. **씨앗 심기** - 학년별 풍물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음악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악기별 장단을 익히며 교사, 학부모도 풍물 동아리를 만들어 연구 활동을 펼쳐 나갔다.
3. **꽃 피우기** - 방학 풍물캠프를 열어 전교생이 앉은반, 선반 과정을 수료하였고 생립초와 지역공동영재학급(풍물)을 운영, 풍물꾼을 양성해 가고 있다.
4. **열매 맺기** - 2011. 김해 초등음악경연대회 금상 수상, 한림면 체육대회, 진영도서관 초청 공연 등 안하골 문화행사 참여로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감동으로 다가서고 있다.

## II. 운동하는학교 - 안하골에 울려 퍼지는 건강 메아리

1. 씨앗 심기 - 학교 뒷길 달리기 코스와 줄넘기 존을 마련, 체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고 학교숲을 이용한 민속놀이 학습장을 2012학년도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2. 꽃 피우기 - 매일 1110건강달리기(학교 뒷길 코스)와 1080 건강운동(줄넘기 존)으로 체력을 기르고 여건이 되지 않는 수영과 빙상활동은 교과 연계 현장체험활동으로 실시하였다.
3. 열매 맺기 - 줄넘기 인증제로 금달(27.78%), 은달(82.79%), 금달 10명을 시상하였고, 지역 화합을 위한 소규모 학교간 합동 운동회를 이웃 신천초등학교와 실시하였다.

## III. 책읽는학교 - 책향기 가득한 안하골 독서 세상

1. 씨앗 심기 -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책읽는 안명학교 독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 및 김해시청 지원으로 도서관을 재정비하였으며 도서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NAVER 재단 책사업부로부터 도서 3,000권을 지원받아 독서교육 환경을 조성하였다.
2. 꽃 피우기 - 교과학습을 심화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학급특색 독서교육 활동을 전개하였고 '책읽어주는 선생님' 등의 강사 초청 교사 연수활동도 병행하였다. 하나뿐인 책만들기, 작가와의 만남, 김해의 책 독서릴레이, 향토 작가와의 만남 등 재미를 더하는 찾아가는 체험 독서 활동을 실시하였다.
3. 열매 맺기 - 더불어 함께하는 안하골 독서 활동을 위해 안하노인정, 한림중, 덕천교회 등에 책꾸러미를 대여하고, 꽃피샘터 영화관의 '울지마 톤즈' 등 분기별 영화 상영과 배려실천 이웃나들이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안하노인정 책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지역사회 문화센터, 평생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본교는 '책읽는 학교' 도교육청 홍보 모델 학교로 MBC TV에서 방영되었다.

## IV. 더 큰 세상을 향하여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길러 내는데 본교는 '3fun! 안명교육 4.0' 교육활동으로 다가가고자 하였다. 안명의 어린이들은 더 큰 세상을 향한 날개짓으로써 친구, 가족, 이웃과의 바른 인간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진정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은 역시 좋은 교육에 달려 있는 것이다.



노래하는 학교-방학 중 풍물캠프



운동하는 학교-수영 활동



책 읽는 학교-안하골 학부모 독서동아리

## 다양한 참살이 체험학습을 통한 창의·인성 함양



윤 영 삼  
함양 마천초등학교 교장

### 1. 추진 배경

본교는 전교생 74명의 농·산촌 벽지에 위치한 전형적인 시골의 소규모 학교로 불교문화 유적지와 지리산, 엄천강을 끼고 있어 다양한 참살이 현장체험 학습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대부분은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학생들의 개별적 가정학습에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특히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현장체험학습 및 바른 인성지도에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교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학교특색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현장체험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2. 특색 교육활동 목표 및 추진방향

#### 가. 목표

국립공원 지리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 본교의 지리적 환경을 교육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참살이 체험학습'을 통해 자연이 주는 혜택과 지혜를 깨닫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며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기른다.

#### 나. 추진방향

- 1) 자연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으로 참살이의 기반 조성
- 2) 지리산 국립공원 등 주변의 천혜 자연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 3)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1~2학년),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3~6학년) 시간을 통합하여 지도하고 창의성과 효제교육을 연계한 인성계발에 역점을 둠
- 4) 학년별 교과교육과정에서 편성·운영해야 하나 인근에 시설이 없는 스키장, 공연장 등의 도시체험 학습의 여건 마련
- 5) 연중 돌봄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3. 특색 교육활동 주요 추진 내용

#### 가. 특색 교육활동의 프로그램

순	체험학습주제	추진내용 및 방법	대상	일정	지역민참여
1	텃밭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별 텃밭 분양하기</li> <li>• 학년별 재배희망 채소 씨앗뿌리기 및 묘목심기</li> <li>• 잡초 제거하기, 관리하기</li> <li>• 수확하기, 요리하기</li> </ul>	전교생	3월15일 3월19일 수시 6월 3일	
2	우리고장 문화재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송사 탐방하기</li> <li>• 우리 고장의 문화재 둘러보기</li> <li>• 우리 고장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갖기</li> </ul>	4~6년	5월 17일	함양군 문화해설사 해설 요청
3	친환경 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요리하기</li> <li>• 지리산 국립공원 주변의 산나물 뜯기</li> <li>• 친환경 요리 만들기</li> </ul>	전교생	5월 21일	학부모, 쉼터 가족과 나눠 먹기
4	친구와 지리산 둘레길 걷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산 둘레길 걸으며 우정 다지기</li> <li>• 고장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기</li> <li>• 자연보호 활동하기</li> </ul>	전교생	7월 2일	
5	은혜의 집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노인요양복지 시설 방문하기</li> <li>•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준비하여 방문하기</li> <li>• 방과후 특기적성개발활동으로 익힌 장기 발표하기</li> </ul>	전교생 1~3년 4~6년	사전협의 6월 4일 11월 19일	자원봉사자와 함께 봉사의 기쁨 나누기
6	우리고장 특산물·문화재 알람이 선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고장의 특산물(저학년)과 문화재(고학년) 조사 발표하기</li> <li>•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 갖기</li> </ul>	전교생	10월 1일	미천면 농협으로부터 특산물 대여
7	천왕봉 등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왕봉(고학년) 및 지리산 등반(저학년)하기</li> <li>• 자연정화 활동하기</li> </ul>	전교생 학부모	10월 21일	지리산관리소 직원, 학부모
8	도시문화체험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타기</li> <li>• 영화 관람하기</li> <li>• 운동경기 관람하기</li> </ul>	5~6년	10월 25일~ 10월 26일	총동창회 협조
9	나눔 바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품 수집 및 교환하기</li> <li>• 학부모 참여 먹거리 장터 운영하기</li> <li>• 수익금으로 이웃돕기</li> </ul>	전교생 학부모	10월 29일	학부모, 지역민, 관광객
10	연극공연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어린이 연극 페스티벌' 연극 관람하기</li> <li>• 문화 모임 '광대' 정기 공연 관람하기</li> </ul>	전교생	10월 31일 ~11월 5일	
11	지리산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물을 이용한 무한 상상 자연실험교실 참가하기</li> <li>• 소금쟁이, 곤충, 눈 결정 모빌 등 만들기</li> </ul>	전교생	매월 1회 (총 9회)	지리산 국립공원직원



## 나. 특색 교육활동 모습들



〈뿔발 가꾸기〉



〈채소 수확하기〉



〈썩떡 만들기〉



〈자연 공작 교실〉



〈우리고장 문화재 탐방〉



〈지리산 둘레길 걷기〉



〈지리산 숲 체험〉



〈곤충 채집〉



〈지리산 등반〉



〈천왕봉 등반〉



〈나눔 바자회〉



〈은혜의 집 방문〉

## 4. 특색 교육활동 추진 성과

학교특색 교육활동인 다양한 참살이 체험학습 활동으로

가. 학생에게는 고장의 자연과 문화를 더 알고 깨달음으로써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과 친환경적 태도가 형성되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이 길러졌으며 건강한 체험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창의성과 좋은 인성이 계발되어졌고

나. 교사에게는 적극적이고 살아 있는 학습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가르치는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다. 학부모에게는 학교 교육활동의 참여율 증가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다.

## 학교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사례



김 현 구

창원 구암초등학교 교장

### 1. 이런 고민으로 시작했습니다

첫째, 학교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낭비를 줄이고 사용할 곳은 사용하면서 예산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는 없을까?

둘째, 학교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며, 만족하는 방법은 없을까?

셋째,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원을 학교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마련할 방법은 없을까?

### 2. 이런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가. 구암초등학교 납품 및 용역업체선정위원회 규정 제정

구암초등학교의 교육에 관련되는 납품 및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교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 및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합리적 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구암초등학교 납품 및 용역업체선정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다.

#### 나. 선정위원회 구성 및 업무

선정위원회는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교무부장, 간사는 연구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보관하였다.

#### 다. 운영

1) 납품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회의를 할 것인지는 학교장이 결정하며, 학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였다.

2) 선정위원회 회의의 진행을 위한 준비는 간사가 하나 해당 안건에 대한 모든 자료 준비 및 견적서 받기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한 정보제공 등과 회의록 작성, 학교장 결재 등의 업무는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였다.

## 라. 업체 선정 절차 및 방법

1) 선정위원회 회의는 여러 업체 중에서 납품 물건이나 용역에 대한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학교장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순위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고 행정실에서 계약하였다.

2)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순서가 잘 못 되었다고 학교장이 판단되면 회의록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순서와 관계없이 학교장이 최종 결정했다.

3) 긴급을 요구하는 것이거나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는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일정 금액의 기준과 선정위원회를 거칠 것인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하였다.

## 마. 만족도 평가 및 재선정

1) 납품 및 용역 제공이 계속 될 경우에는 분기별 혹은 학기별, 학년도 별로 납품 및 용역업체를 재선정하였다.

2) 기존 계약 업체에 대해 품질과 가격 등 만족도를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 만족도가 높을 경우 납품 및 용역업체 재선정시 추천할 수 있게 하였고,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만족도가 낮으면 견적서 자체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 바. 물품구입 과정

1) 계원의 물품 구입 요구 → 2) 계원이 3~4곳의 업체에서 견적서 받음 → 3) 선정위원회에서 순위 정함 → 4) 학교장이 순위 보고 → 5) 학교장이 결정 → 6) 행정실에서 주문 → 7) 물품 납품 → 8) 검수

## 사. 회의 및 회의록 공개

## 3.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 말까지 위와 같은 과정으로 실천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가. 학교예산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효과성 확보

1) 학교에서 물건 구입이건, 공사를 하건 모든 것을 선정위원회에서 3~4곳의 업체에서 낸 견적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순위를 정하여 1위 순위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었다.

2)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납품업자들 간에 가격 경쟁이 불고, 또 좋은 물품을 넣지 않으면 다음 평가에서 그 업체는 제외됨으로 업체에서는 낮은 가격에 좋은 물품을 납품 하게 되었다.

## 나.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만족

1) 담당자가 3~4곳 업체의 견적서를 받고, 교감, 행정실장, 각 부장들이 모인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물품구입과 학교회계가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과정에서 담당자와 학교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게 되었다.

2) 학교 구성원이 각자의 예산은 자기가 구매할 곳의 3~4곳에서 견적서를 받고 선정위원회에서 설명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제를 받고 품위를 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행정실과 교장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게 되고 예산을 서로 절약하게 되었다.

3) 학교 예산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4) 교직원 모두는 자기에게 편성된 예산은 꼭 챙겨서 사용하고, 필요한 곳은 꼭 사용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어 예산의 효과성이 높아졌다.

## 다. 절약된 예산으로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해결

1) 학교에서 구입하는 물품이나 공사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다 보니 2010년 말에 41,375,910원의 예산이 절감 되어 남았고, 2011년 말에는 39,539,300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었다.

2) 예산이 이렇게 남는 이유를 보면 물품을 구입할 때나 공사를 할 때마다 경쟁이 있다 보니 절감된 것도 있고, 선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논의를 거치니 학교 예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각 학년에 알려주다 보니 직원 모두가 당장 필요 없는 것을 구입하지 않았다.

3) 2010년에 41,375,910원 절약된 예산 중에서 1천 만원은 2011년 본예산에 편성했고, 31,375,910원은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조사하여 전교실 진공청소기 등 21가지를 공사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2011년에 39,539,300원 절약된 예산은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조사하여 29곳의 철관 교체 등 20가지의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였다.

## ‘대운학부모 일본어 교실’ 운영과 평생교육



이 종 현

양산 대운초등학교 교사

1학년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간 2반 교실은 1시 반 쯤 되면, 교실에는 ‘♪고 이비도요~ ♪사요~나라 기세쯔와~♪’ 일본노래가 조용히 흐르며 공부하러 오시는 학부모 수강생을 맞이하는 분위기로 변한다. “곤니찌와”라고 인사하면서 교실에 들어오시는 전순용 할머니는 그동안 배운 일본어를 많이 말해보려고 무척 애쓰시는 분이시다. 3살 때 한국어에 오신 할머니는 일본이름을 일본어로 쓰지 못하신다. 환갑을 넘기셨는데도 일본어로 글도 쓰고 말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고 하신다.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셔서 교사 책상 맨 앞에 자리를 잡으신다. 그 뒤로 몇 몇 분이 들어오시면서 서로 “곤니찌와~” “오짚끼데스까” 하고 인사말을 주고 받는다.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도 어느덧 입에서 자연스레 나오게 된 것 같다. 전혀 어색함이 없다. 일본문화가 조금은 몸에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여 뿌듯함을 느끼는 시간이다.

양산의 대운초등학교(교장 서정배)는 2009년 동료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교실이 시작되었는데, 2010년과 2011년에는 그 대상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으로 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나는 일본어 교실 강사로 일본 유학과 와카야마 교육원에 파견근무를 다녀온 본교 교사이다. 내가 일본어교실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교직의 전문성 신장만을 위해 달려온 교직생활 30년. 나이 50을 넘고 보니 주위에 남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눔을 실천해보자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한 나에게 남에게 나누어줄 만한 재능이 과연 있을까 자신에게 몇 번이고 되물곤 한끝에 나눌만한 재능이란 역시 가르치는 일밖에 없음을 깨닫고 일본 유학과 와카야마 한국교육원의 경험을 살려 일본어라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다.

2011년 4월 25일, 수강생 15여 명과 개강식을 가졌다. ‘대운 학부모 일본어 교실’에 참가한 학부모들께 수강 동기를 물어보니, “대학 때 언뜻 배웠던 일본어를 아이가 다니는 가까운 학교에서 다시 배울 수 있다면 학교가는 게 즐거울 것 같아서요”,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을 졸업한 후 생각도 못해봤는데, 학원이나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것



보다 편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답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업에 참가하시는 한송미 어머니께서는 작년엔 글자 생김새도 비슷하고 잘 모르겠던데 선생님이 워낙 재미있게 유머를 넣어서 설명해주시니 공부도 재미있었다고 하신다. 요즘에는 TV 일본드라마에서 인사하는 말도 들리고, 글자도 조금 읽을 수 있게 되어 신이 나고, 내년에는 아이와 함께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1년차 어머니께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1년 더 공부하자고 먼저 배운 선배로서 위로와 격려도 하였다.

수업시간 한 시간 좀 지나자, “선생님! 좀 쉬었다 해요”하면서 오늘 차 당번이신 분이 적당한 시간에 티타임을 요청하자,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에 화색이 돈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신경을 바짝 세우게 하기에 이시간이 무척 기다려지는 것 같다.

“교와난노쥬스데스까(오늘은 무슨쥬스 입니까)”라고 교사가 묻자, 준비해 오신 분이 “교와우메쥬스데스(오늘은 매실쥬스입니다)”라고 발음이 어눌하기는 하지만 자신있게 답한다. 이 답을 하기 위해 연습을 많이 하신다고 한다. 그리고는 쥬스를 나누어 주면서 “도오쥬(자, 드시죠)”하고 말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여기저기서 “이깡아 데스까(맛이 어때요?)”와 “오이시이데스까(맛있어요?)” “하이, 오이시이데스(네, 맛있어요)” 등 대화가 넘쳐난다. 준비해온 쥬스, 차를 마시면서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차 마실 때의 대화를 입으로 말해보는 시간이다. 이시간은 드라마에서 본 이야기, 일본에 관한 이야기 등 이야기 꽃으로 화기애애해지기에 이시간이 가장 일본어교실답다.

매주 월요일에 1시간씩 공부하다가 9월부터는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수강생의 열의를 반영하여 30분 연장하여 공부한 결과 수료식 때까지 책 한권을 다 마치게 되었고 수강생은 물론 강사도 뿌듯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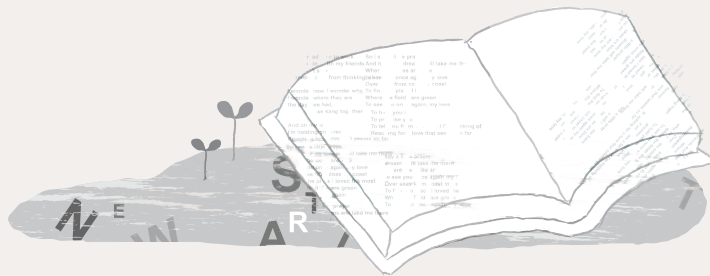
2012년 2월 13일에 8명이 참가한 수료식을 가졌다. 다과회를 겸하여 일본어교실의 1년간의 반성과 소감, 추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학부모가 학교에 오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는데, 매주 일본어교실에 오게 되니 학교가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가 다니는 교실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공부를 하니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차원에서 이런 반을 운영해주셔서 정말 배움의 즐거움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생소한 일본어를 젊은 어머니들과 함께 배우고 나니 어머니들과도 가까워지고 일본어와도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 지역은 학원이나 다른 곳에서 일본어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와 함께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소를 제공해주신 학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학부모에게 일본어교실을 통해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는데, 내년에는 일본어교실을 아이들에게도 오픈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외에도 다른 외국어를 접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 싶은 욕심이 마음 저 구석에서 꿈틀거린다.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교의 배움의 장 제공 등 여건이 갖추어지면 내년에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일본어교실을 운영하는 소망을 이룰수 있을런지……. 일본어를 배우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늘어나면 일본 가정과의 교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교류를 통해 아이들이 자국의 문화에 긍지를 갖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시대의 주역들로 자랄 수 있게, 미약하나마 작은 시작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꿈을 꾸다, 나의 꿈이 현실이 되면, 아이들은 영어 외의 다른 외국어를 접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한 또 다른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부모와 함께 공부하면서 즐거움과 따뜻함과 안정도 느끼게 될 것이다. 부모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공부하는 부모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게 되는 등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는 평생학습사회에서 학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신뢰도를 높게 될 것이다.



# 수업 컨설팅의 새로운 도전 품앗이 교수·학습활동



김종인  
창원 대방초등학교 교사

## 1. 교실 문을 열며

수업 컨설팅 장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교실을 공개하길 꺼리는 교사의 인식이다.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쉽게 공개되지 않았고 강요받지 않았던 독립된 공간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되길 강요하는 상황에서 컨설팅 장학이 이루어 지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장학이라는 이름에서 컨설팅 장학으로 이름 바꾸었다고 그 본질적인 생각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지금도 컨설팅 장학이라는 명목으로 교실을 들여다보면 평소의 교실이 아니라 잘 짜여진 완벽한 연기를 보여 주고 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컨설팅 장학의 본래 취지인 평소의 교실 수업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물론 기존에 행하던 장학보다는 훨씬 더 교사에게 다가간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없을까? 자연스럽게 교실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수업 컨설팅을 위해 고민한 끝에 품앗이 교수·학습활동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봤다.

## 2. 품앗이 교수·학습활동이란?

품앗이란 옛날 조상들이 바쁜 농사철에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해 주던 미풍양속에서 따온 말로 교실현장에서도 서로 도와가며 수업을 진행하자는 의미에서 품앗이 교수·학습이라고 하였다.

수업에서 담임교사 즉,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사를 품이 교사, 수업에 참여하여 모둠활동을 지원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사를 앓이 교사라고 하였다. 즉, 모둠활동이나 수학 시간 등 도움이 필요한 수업에서는 전담시간에 쉬고 있는 교사를 초청하여 도움을 받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교사의 수업 시간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품앗이 교수·학습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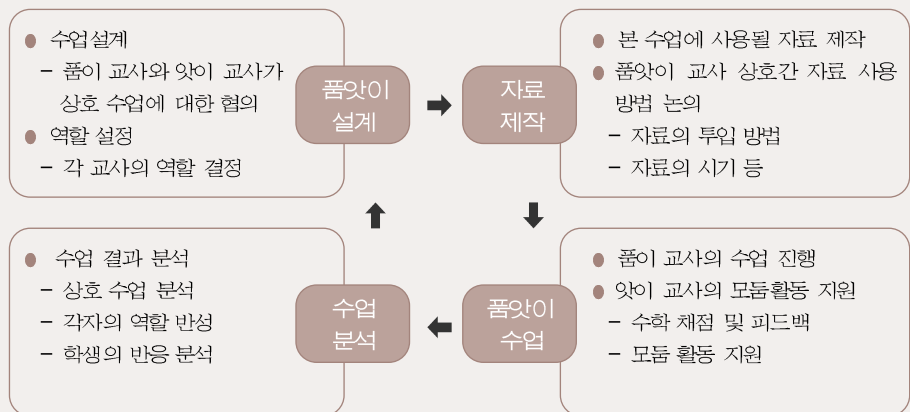
〈앓이 교사 활동 모습〉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또 앗이 교사와 품이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소감 등을 나누어 이후의 수업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교실 문이 열리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3. 적용 방법

우리 교유의 전통인 품앗이를 한 품앗이 교수·학습활동으로 단위 수업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품이 교사와 한 명 이상의 도우미 교사 즉 앗이 교사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학생 중심의 지도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부진아 없는 학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업 전에 수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획과 수업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품앗이 교수·학습 흐름도〉

사전 협의회 때에는 협의록을 작성하였다. 협의록에는 수업 일시와 장소, 교과 단원 및 차시, 학습목표, 학습순서 및 수업내용, 주의할 점, 평가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최상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특히 자료에 대한 부담감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4. 효과성

품앗이 교수·학습활동에서의 수업 컨설팅은 컨설팅을 받는다는 긴장감이 없다. 또한 누가 컨설팅 의뢰자이고 누가 컨설턴트인지를 알 수 없다. 컨설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개인적 필요에 의해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컨설턴트는 꼭 우수한 교사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컨설팅은 동료교사끼리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동료교사끼리 계획하고 수업에 참여하여 실행해보고 반성해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컨설팅의 궁극적 목표는 수업개선을 통한 학력향상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품앗이 교수·학습활동을 통한 컨설팅은 컨설팅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고려하고 있다. 단위시간 교사 혼자서 하기 힘든 다양한 활동들은 앗이교사들이 보조해줌으로써 보다 쉽게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교사의 관심을 받게 되므로 인해서 보다 밀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단위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결손이 발생되지 않아 학습 결손 누적으로 인한 학습부진 학생이 발생되지 않는다. 특히 동학년 단위로 품앗이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5. 나오며

지난 4월, 4명의 신규교사들이 본교에 전입해 왔다. 신규교사들에게 학교 적응과 학생들의 생활지도,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뜻있는 교사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품앗이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면서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품이 교사도 앗이 교사도 서로 배움이 컸었다. 아마도 동학년끼리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3월 품앗이 교수·학습활동으로 다함께 성장하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품앗이 수업 안내 및 결과반성

일시	2011.05.09. (월) 5~6교시		장소	5~6교실	
교과	수학	단원 및 차시	5. 길이제기(5/9)	교재	교과서: 76~77쪽
학습목표	길이틀 어떻게 보고, 가로 선 길이의 차를 알 수 있다.				
학습순서 및 내용 (앗이 선생님의 역할)	종이 : 길종한		앗이		
			김소영	박규민	
	활동1> 별개의 길이는 건(10분) - 별개의 길이를 이용하여 가로 선 길이의 차 알기 (가로 선의 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점) 활동2> 길이를 어떻게 하는 방법 (5분) - 길이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 - 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어떻게 (모동철의 색연필이 토끼 칠어 표시) 활동3> 예외보드게임활동 (12분) - 활동 2에서 도입 한 방법으로 길이를 이용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하기 ① 순서를 바꾸니, 같은 줄만 한, 세할 표시까지, 자 준비 ② 바구니안의 카드를 뒤집어 놓기 ③ 게임시각과 함께 카드를 뒤집어 나온 물건을 하나의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모동철이 토끼한 방법으로 어떻게)		계도 상황 유형 의 결	활동2> 별개의 길이는? - 가로 선의 개를 세는거 확인 활동2> 길이를 어떻게 하는 방법 - 규칙적으로 생각해봄 - 선체를 활용하는 방법 활동3> 예외보드게임활동 - 동일한 게임 진행 및 도우미 학습관리 - 수직 확인하고 피드백제공	
			평가 내용	① 토끼로 어떻게 ② 동시에 어떻게 ③ 길이를 비교 나타내기 정확적으로 생각해보기	
		회원명	김민정	김민정	최영희
		장문혁	손은혜	김경희	우상혁
		허남일	김태우	김민성	김민준

(사전 협의회 자료)

# 100年 직장·기술 보장 마이스터고 교육



이 호 환  
삼천포공고(마이스터고) 교장



01

## 1. 꿈, 희망을 열어젖히며

우리 사회의 고학력 병을 치유하고, 고교만 졸업해도 직장에서 우대받으면서 자신의 꿈을 현실로 창조할 수 있는 학교가 특성화·마이스터고이다. 본교는 전국에서 유일한 항공조선마이스터고로 100% 산업수요 맞춤형 심화기술교육으로 평생직장·기술이 보장되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이 꿈, 희망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02

## 2. 기술인재 보장교육

2010학년도에 전국 21개 마이스터고가 대통령을 모시고 동시 개교, 입학식을 하여 현재 3학년에 이르고 있다.

### 가. 맞춤형교육 그룹 구성

학년별	그룹별	교육과정운영별
1학년	기초 영마이스터 (공통그룹)	· 학급당 20명으로 5개 학급으로 항공조선 마이스터 기본 교육과 산업체 등 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함
2학년	준 영마이스터 (항공 및 조선그룹)	· 전문기술교육을 협약업체에서 체험기술교육과 기술명장이 내교하여 교육함
3학년	영마이스터 (항공 및 조선그룹)	· 기술교육은 K항공반, S중공업반, 대기업반, 공기업반, 강소기업 반으로 100% 현장맞춤 최고의 기술교육함



03

### 나. 명품기술인재교육

#### 1) 인간 영마이스터교육

- 3Do 3No 교육[인간 교육] (\*3Do<인사, 용의, 약속>, 3No<거짓, 흡연, 폭력>)
- 3정 5S 교육[기업가 교육] (\*3정<정품, 정량, 정위치>,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 2) 마이스터 리더십 교육

- 80시간 이상의 나눔과 배려 및 봉사교육
- 심폐소생술 자격취득교육
- 능숙한 1인, 1악기·1구기 교육
- 연 30권 이상 지정도서 읽고 발표교육
- 정보화 활용 능력 발휘교육 등

01 21개 마이스터고 전국동시 개교·입학식

02 항공 산업 체험교육

03 항공기조립 창의교육



## 다. 최고의 기술교육

### 1) 항공산업과

- \*3점 5S에 의한 기본교육의 생활화     일반용접 및 전기공사기술교육
- CNC선반·밀링 및 \*5축 가공장비로 항공부품의 제작과 장비의 운용·활용
- 범용공작기계의 자유로운 운용·활용     \*치공구, \*금형제작기술교육
- 3차원 정밀측정 및 ,\*CATIA교육     \*항공기 기체제작 및 조립

이런 항공기 제작·조립기술을 통한 최고의 항공기 제작, 기술명장을 육성함  
(\* : 고교 최초로 마이스터고인 본교만이 하는 교육)

### 2) 조선산업과

- \*3점 5S에 의한 기본교육의 생활화
- 범용공작기계의 자유로운 운용·활용     일반용접 및 전기공사기술교육
- 특수용접, \*선금용접 자격교육     \*선체구조 선체제조기술교육
- \*크루저 선박의 해양의장 기술교육     배관, 냉동기술, 동력제어 기술교육

이런 기술교육으로 대한민국 최초 크루저 선박건조 기술명장을 육성함  
(\* : 고교 최초로 마이스터고인 본교만이 하는 교육)

### 3) 일류기업이 인증하는 기술명장 인증제 실시

- ① 직업기초능력인증(60시간이상)    ② 전문기술능력인증(자격 3종 이상)
- ③ 외국어능력인증(토익 600점 이상)    ④ 정보화능력인증(관련자격)
- ⑤ 직업의식능력(봉사)    ⑥ 기타능력인증(한자, 1악기/1운동, 심폐소생술자격)

6가지 인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이스터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3. 명문대 안 부러운 100% 취업실현

항공조선 마이스터고인 본교는 항공 관련 20여개, 조선 관련 10여개 업체와 산학협약 및 취업약정을 맺고 그 기업들과 손잡고 100% 현장맞춤 심화기술교육을 하고 있다. 현 3학년들은 2학년 때 공기업 및 대기업에 취업이 50% 정도 약정되어 그 기업과 공동으로 현장맞춤기술교육에 임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100% 취업약정 등은 되어 있지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20~30%는 3~5월 공기업, 대기업 등 공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나머지 20~30%는 강소기업에 만족 이상의 대우로 취업을 추진하고 있다.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하기 힘든 기업을 실력으로 뚫으니,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100년 직장·기술보장 학교 교육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기술명장! 행복한 미래!]



04 항공기 설계 카티아 기술 교육

05 선금용접 기술 교육

06 선금용접 기술 교육

# 페이스북에서의 그룹 활용하기



최재용  
한국소설미디어교육원 원장

## 1. 페이스북 북에서의 그룹의 기능

인터넷의 문화는 커뮤니티 문화라고 한다. 나와 비슷한 관심사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관심사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곳들이 많은 곳이 인터넷 공간이다. 그런 커뮤니티 공간의 대표가 이전에는 카페였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카페보다는 자연스레 앱으로 나와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트위터의 경우는 트위터 모임또는 트위터당이라는 이름으로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조직이 이루어진다면, 페이스북에서는 그룹이라는 기능이 커뮤니티 조직 기능을 한다.

## 2. 페이스북 그룹의 구성

트위터의 당이나 포털의 카페처럼 자발적으로 찾아가 가입하여 커뮤니티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만든 사람이 자신과 연관되어있는 친구들을 끌어들여 넣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 3. 페이스북 그룹 가입 방법

그룹을 만든 사람에 의해 기본적으로 가입되어지지만, 자발적으로 원해서 가입신청을 하고 가입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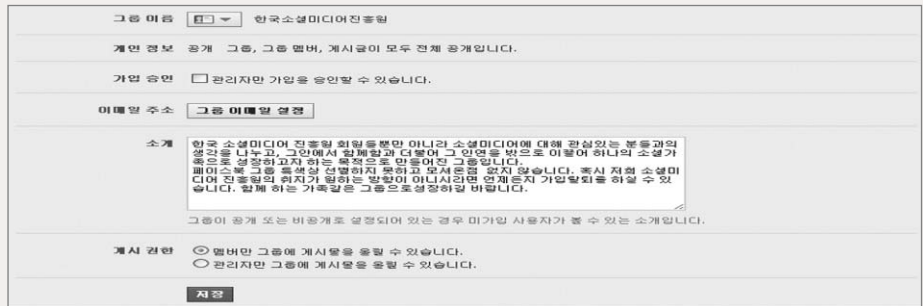
### 4. 페이스북 그룹의 활용

페이스북 그룹을 본인이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기존 그룹에 가입되어지거나 가입해서 활동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가. 자신이 직접 그룹을 만들어 운영할 경우

##### 1) 그룹 운영의 이유 알리기

그룹 회원을 나와 관련 있는 친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친구들이라고 해서 사실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서로 보고 아는 친구가 아닌 무작위 친구이므로 그룹가입에 불만이 생길수도 있다. 그런 불만을 최소화 하고 그룹회원들의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룹에 대한 취지와 그 취지를 원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탈퇴할 수 있다는 전달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 2) 그룹 활성화 위한 노력 기울이기

그룹은 만든다고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룹은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게 그 목적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처음 얼마동안은 그룹을 만든 운영자의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의 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그룹의 취지와 연관성 있는 글을 하루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꼭 올려주어 그룹이 활성화 되어 있음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 나. 그룹에 가입되어지거나 가입하는 경우의 그룹 활용

페이스북을 시작하고 친구를 만들고 활동을 하다보면 몇 군데 그룹에 자동으로 가입되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아니면 자신의 관심사로 그룹검색을 해서 가입요청하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1) 다른 사람의 글에 관심 가지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해서는 그룹 활동을 통해 그룹 내의 다른 사람의 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전 활동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홍보성 글을 올리게 되면, 인상도 안 좋게 찍혀 그 이후에 아무리 좋은 글을 올리고 반응을 보인다 해도 의심의 눈으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즉, 그룹에서 그룹 특성과 맞는 글을 자주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2) 그룹 활동 시작해보기

그룹에 자동 가입되어져있다면, 자신의 관심사나 자신의 일과의 관련성이 너무 급격하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면,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일단 그룹에 들어가서, 그룹인사를 해라. 그룹 인사 시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는 일을 홍보해도 좋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여행사에서 주로 가을관광에 대한 상품중심으로 관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행을 준비하는데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와 같은 식의 인사말을 남겨라. 처음 가입해서 하는 인사이므로, 어떤 누구도 홍보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 아름다운 동행



김 순 희

하동초등학교 교사(섬진강 사랑의 집 파견)

‘창가에 비친 햇살이 미옥씨 미소처럼 밝아졌네요.’ ‘오늘은 백현씨 마음처럼 하늘이 시무룩하네요.’ 날마다 칠판에 날씨를 다룬 일상의 글을 올리지만.....

올해 8월이 되면 교직을 떠나게 된다. 지난 교직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비록 승진은 하지 않았지만 평교사로서 여한없이 온 열정을 다 쏟아서인지 때가 온만큼 솔직히 교직에 조금도 미련과 아쉬움 없이 오히려 정년이 손꼽아 기다려진다.

‘지나온 일 인생길이 塞翁之馬라고 했던가!’ 교직에 보람된 일(합창지도)도 참 많았지만, 때론 근무 중에 불의의 사고와 아픔을 함께하며 온갖 잇을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다.

가장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는 나의 교직생활 마무리 시점에서 참 좋은 추억 속에 잇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 되새기고싶다.

나는 현재 하동 <섬진강 사랑의집>에 파견근무하고 있다. 이곳 시설은 1급 장애인만 거주하며 생활하는 곳인데,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중증장애인으로서는 학교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부분 성인들로 구성된 초등교육과정의 파견학급 학생들이다. 이곳에서 작년 8월 중순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이다. 평소 때 늘 나는 입버릇처럼

“자민씨~ 이번 여름방학 때는 우리 둘이서 단 하루만이라도 여행 한 번 갑시다.”

바깥출입을 꺼려하는 자민씨에게 꼭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늘 이런 말을 건넨 적이 많았지만 자민씨는 한결같이

“아니예요, 안갈래요! 선생님이 너무 피곤하니까요.”(힘들게 의사표현)

우리 반 학생 중 자민(가명)씨는 51세 뇌성마비 여학생이신데 다른 장애인보다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어서 방학 중에 나와 평소에 가보지 못한 하동 <삼성궁>을 돌이서만 여행하기로 드디어 자세한 계획을 세웠다.

약속된 날, 우린 오전에 하동읍 버스정류장에서 돌이서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 우리 자민씨는 승용차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자민씨와 나는 이미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여 여행하기로 계획된 것인데(내가 운전을 못한 탓).....

이게 무슨 행운인지! 나는 뜻밖이라서 어리둥절하면서도 한편, 기분이 참 좋았다.

자연인즉 들어보니 자민씨가 그곳 직원이신 분에게 나와 여행하기로 했다고 자랑을 한 것이다. 생각이 깊으신 그분은 그 직장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청소하고 빨래하는 위생원이시며 가정생활이 있어 늘 바쁜 분이셨다. 그런데 그 날은 자민씨가 차없이 걸기가 불편한 장애인인줄 너무나 잘 아니까 일부러 연가를 내고 함께 봉사하는 차원에서 동행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세 명은 말이 필요없는 느낌만으로도 정말 사랑의 친목으로, 어느새 마음이 함께 동화된 사이가 된 것이다. 또한 뜻밖에 자가용으로 가게 되어, 난 덤으로 그 곳의 초입 근무지였던 학교와 예전에 머물렀던 추억이 깃든 곳도 찾아보고 멈추어보며 옛 추억의 감회를 느꼈다.

자민씨 집은 청암이라서 그 유명한 <삼성궁>을 진즉, 한 번쯤 가 보았을텐데..... 가까운 곳에 자민씨 집이 있었지만 그 동안 직접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점 참으로 안타까웠다. <삼성궁>은 매표소에서 보통 10~15분 정도의 거리인데 자민씨는 보행장애가 있어 우리 두 사람이 동행하고 부축해도 거의 40~50분 소요되는 길을 걸게 되었다. 여름날이라 자민씨는 유별나게 몸이 경직되어 땀을 비오듯 흘리며 목적지 <삼성궁>까지 겨우 도달했다. 걷는 중 나와 그 직원은 자민씨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돌이서 앞, 뒤로 호위하며 왕비 모시듯 부축하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삼성궁>입구에 도착, 사방을 둘러보니 탁트인 잘 조성된 옛 유적지 복원이 인상적이며 시원한 산바람 불어 기분이 참 상쾌했었다. 이런 관광지를 둘러보며 자민씨가 평생 가보지 못한 곳을 가게 된 점에 우리는 큰 의미를 두며 즐거운 맘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점심은 청피골이라는 경치 좋고 시원한 원두막에서 맛있는 대통밥, 산채비빔을 먹으면서 우리는 씻어서 밝게 웃으며 서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자민씨와 세상구경 체험에 동행을 했다는 일은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청암에 홀로 사신 자민씨 어머니 댁에도 들려 시원한 매실차를 마신 참 즐거운 나들이였다.

“자민씨, 성자씨 함께 동행해 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 깨어진 옹기시루



장 현 재

남해초등학교 교사

생활하다보면 오밀조밀한 소품들이 항상 우리 곁을 따라다닌다. 머리밴드, 머리핀, 휴대전화 전지 등 꼭 필요하면서도 잘 보관이 되지 않아 집안의 이곳저곳에 뒹굴게 된다. 우리 집엔 이런 자그마한 것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 비싸지도 크지도 세인의 관심을 끌지도 않는 옹기로 만든 한 되들이 작은 시루다. 이 녀석은 항상 거실 한쪽 한 뼘 높이의 선반에 앉아 그저 자기 할 일만 말없이 하고 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 현관문을 열자 너덧 조각으로 깨어진 이 녀석이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아내 말인즉슨 청소하다가 선반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내심 아까운 생각이 들어 강력접착제로 붙여보기로 하였다. 깨어진 조각을 이리 저리 퍼즐 조각처럼 맞춰 보니 대강은 들어맞는데 금이 간 사이를 메워 줄 미세한 조각들은 맞추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내는 공상맞다고 당장 버리라고 하지만 맞춰 붙여 보니 그런대로 원래 모습을 갖추어 다시 제 기능을 주기로 하였다. 접착제가 마르고 나서 옹기시루를 보니 형태는 보존하고 있지만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을 보면서 문득 사람과의 만남에서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고받은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수한 만남을 한다. 얕은 만남이든 깊은 만남이든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헤어짐도 역시 반복하게 된다. 사람 사이에서 이런 만남과 헤어짐이 좋은 추억으로 남으면 참 좋을 것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얼굴을 붉히고 돌아서는 일도 허다하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갈등이라고 한다. 갈등은 소설의 구성에서 꼭 필요하다. 책을 읽다 그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 카타르시스를 맛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은 감정이 개입된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끝내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파경을 맞는다. 파경은 부부 사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어떤 연유로 인해 백년해로의 기약이 깨어진다는 의미



다. 그렇게 만나지 못해, 같이 있지 못해 안달이 날 지경인 남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경을 맞아 등을 돌리면 사랑하던 마음은 일순간에 미움으로 돌변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서로의 가슴에 항상 치유되지 않는 아픔으로 따라다닌다. 비단 이런 예 말고도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만남과 갈등 그리고 헤어짐은 너무 많다. 그 만남의 인연들이 분홍빛으로 점철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갈등의 파편인 금간 흔적이거나 사금파리 조각은 날카로워 손이나 발을 다치게 한다. 그 위기를 모면하려면 물리적인 힘으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난 상처의 조각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치유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기억 속에 쉽게 잊히지만 아픈 감정은 언제나 멈추지 않는 메아리로 반복된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았던 일은 쉽게 잊히지만 내가 도움을 주었던 일은 잘 기억하고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우리네 욕심이다.

끄집어내 놓은 소품들을 다시 담으면서 옹기시루의 안쪽을 본다. 단단히 붙었지만 깨진 흔적들은 선명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의 흔적을 남겼는지 돌아보게 된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살아가며 즐거운 만남을 계속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좋은 기억을 남기게 되면 그것은 큰 덕이란 자산으로 돌아온다.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저울로 균형을 따져 만남의 도구를 잘 다듬질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현인의 모습이 아닐까?

우주는 광대하고 세상은 넓다. 그 중 인간이 살아야 하는 기간은 점 하나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존귀한 우리가 상처를 내고 다듬기 전에 상처를 내지 않는 만남을 이루는 게 삶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한다.

다시 한 번 안타깝고 안스러워 깨어진 옹기시루를 만져 본다. 조각끼리 붙여진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버리기보다 저 깨어진 흔적을 보면서 다듬고 보듬는 마음을 키워볼까 한다.





## 저마다의 빛깔로 꿈을 키우는 학교



정 영 선

창원초등학교 3학년 강재영 어머니

찬바람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고 시린 손끝을 호호 불게 만들었던 겨울도 따스한 봄기운 앞에서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봄이란 저마다의 가슴에서 자라는 꿈의 싹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창원초등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과 그 배움의 씨앗들을 펼쳐 보일 수 있게 마련되었던 꿈키우미 페스티벌과 제1회 창흥제는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위한 확실한 배려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 각자가 관심이 있고 배우고싶은 분야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쳐보였던 페스티벌과 토요일, 온 학교가 들썩이도록 흥분되어 있던 아이들의 모습은 오랜만에 저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바쁜 부모를 대신해서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니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포켓몬스터를 그리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었다가, 학교에서 형들의 밴드 공연을 보고 와서는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싶어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힘든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싶어 하는 아들. 하루에도 몇 번씩 되고싶은 것이 바뀌는 아들이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꿈에 한 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엄마인 나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교육절감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에서는 막연히 장소만을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교사의 관심 아래 아들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있어서가 아닐까? 해보지 못한 것을 직접 해봄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은 우리 아이들을 넓은 잔디 위를 누비는 축구선수가 되게도 하고,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열창하는 멋진 뮤지션이 되게도 할 것이며,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컴퓨터 관련 기업가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요즈음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믿음이 그 희망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찬 창원 선생님들의 땀과 노고, 학교에서 하는 교육활동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창원의 부모님들로 인해 저마다의 빛깔로 반짝이게 될 창원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는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으로 빛날 보석을 가슴 속에 키우는 우리 아이들은 어느 자리에서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자랄 것이다.





## ‘나쁜 어린이표’를 읽고



김 서 린

대원초등학교 3학년 4반

이 책은 오빠가 읽으라고 엄마가 몇 년 전에 사 두신 것인데 일 년 전쯤 엄마가 자기 전에 나한테 읽어 주신 책이다. 그 때 재밌게 들었던 생각이 나서 오늘은 내가 혼자 읽어 보았다.

이 책의 주인공은 건우라는 학생이다. 건우 선생님께서는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나쁜 어린이표’를 주신다. 준비물을 못 챙겨 왔을 때, 공부 시간에 떠들었을 때, 욕했을 때, 싸웠을 때, 숙제 안 해 왔을 때, 복도에서 뛰었을 때 나쁜 어린이표를 받는다. 나쁜 어린이표를 3장 받으면 5시까지 집에 갈 수가 없다.

건우는 반장 선거가 끝나고 청소 시간에 대걸레를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밀려서 넘어지면서 화분을 깬다. 선생님께서는 장난을 치다가 깬 줄 알고 나쁜 어린이표를 주셨다.

또, 특별 활동 시간에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한 발 차이로 공부시간에 늦었다고 나쁜 어린이표 2장을 받았다. 그래서 당번도 아닌데 청소를 도왔고, 청소 당번들이 집에 간 뒤에는 수학 문제를 30개나 풀고 5시가 되어서야 집에 갈 수 있었다.

건우는 나쁜 어린이표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 건우가 화장실에서 욕을 한걸 아시고 선생님께서는 나쁜 어린이표를 또 한 장 주셨다. 그래서 건우도 수첩에 나쁜 선생님표를 만들어서 4장이나 주었다.

그런데 건우는 은지를 밀고 정육이가 싸울 때 편을 들었다가 나쁜 어린이표를 2장 더 받게 되어 또 세 장이 되었다. 하지만 착한 어린이표가 2장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화가 나서 규칙을 바꾸셨다. 착한 어린이표로 나쁜 어린이표를 감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건우는 선생님께 나쁜 선생님표를 2장 더 주었다.

그 때 선생님께서 과학 경진 대회 나갈 사람을 한 명 더 손들라고 하셔서 건우가 손을 들었다. 건우의 꿈은 과학자였기 때문이었다.

과학 경진 대회에 나갈려면 과학 상자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비싸다며 엄마는 사주하지 않으셔서 건우는 아빠께 부탁했다. 아빠는 퇴근 길에 과학상자를 사 오셨는데 그걸 보고 엄마는 아빠 일주일 용돈을 털어 사신 거라고 하셨다. 나는 아빠께 너무 미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다 아빠 구두를 닦아서 얼마씩이라도 갚기로 생각했다.

과학 경진 대회 날이 되었다. 건우는 과학 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큰 드라이버를 가지고 가서 우쭐대다가 경식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선생님께 드라이버를 뺏기고 경식이랑 나쁜 어린이표를 받게 되었다. 경식은 나쁜 어린이표를 처음 받은거라 매우 화가 났다. 건우는 과학 경진 대회 시간동안 기분이 좀 나아졌지만 경식은 짜증을 내고 완성도 못 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서 건우는 비를 맞으며 집에 가고 있었는데 경식이가 다가와서 화를 내면서 밀었다. 그리고 말다툼을 하다 건우도 경식을 밀었다. 경식은 나쁜 어린이표를 받은 데다 헬리콥터를 만들지 못해 엄마에게 야단맞을 일이 걱정되었고 건우는 드라이버를 돌려 받지 못하는데 내일 또 5시까지 남아있는 것이 싫었다. 경식이가 가고 건우 혼자 비를 맞고 가는데 은지가 와서 우산을 씌워주며 전에 욕한 게 미안하고 선생님께 안 일러서 고맙다고 했다.

다음 날 아파서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고 창가에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선생님 책상에 있는 스티커 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나쁜 어린이표 스티커를 잘게 찢어서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고 무섭고 슬퍼서 울면서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한참 후에 선생님께서 나를 찾았는데 선생님께서는 나쁜 선생님표를 적은 내 수첩을 갖고 계셨다. 선생님께서는 건우가 나쁜 어린이표를 가져간 거랑 선생님께서 나쁜 선생님표를 가져간 것을 비밀로 하자고 하시면서 2학기 때는 반장이 되어서 반을 이끈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보라고 하셨다. 또 선생님께서 건우 드라이버를 빌려 쓰셨다고 하시자 선생님과의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께서 먼저 가셨는데 인사를 하지 못해서 건우는 선생님 뒷모습에 대고 고개를 숙이며 처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했다.

건우가 나쁜 아이가 아닌데도 나쁜 어린이표를 자꾸 받게 되어 책을 읽는 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 반도 나쁜 어린이표가 있었다면 나도 힘들었을 것 같다. 나는 나쁜 어린이표보다는 차라리 착한 어린이표를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자신감도 생겨서 학교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작은 실천 단·사·리



강 윤 정

김해동광초등학교 교사

나는 체구가 작은 편이다.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큰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같은 것이 있다. 큰 교복, 큰 책상, 큰 가방이 싫었고 자리면서 점점 필요이상으로 큰 물건이나 큰 공간에 대해서는 ‘쓸 데없다’ 라고 느껴졌다. 좋게 말하면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일찌감치 깨달은 것이고 이는 요즘 표현으로 ‘미니멀리즘’ 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어쨌든 이러한 나의 작은 것에 대한 편애는 생활 전반으로 퍼져갔다. 급기야 이웃나라 일본의 문화 중에 가장 본받아야 할 것은 작은 공간을 활용도 있게 쓰는 것이라고 느꼈고 작은 차, 작은 집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나라에도 곧대두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내 생각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한파의 영향이었지만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는 중형차보다는 소형차가 더 귀하게 대접받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에서도 큰 아파트 보다 작은 아파트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한다. 이렇듯 경제한파의 영향으로 규모를 줄이며 사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곧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내 생각을 더 굳건히 해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책이다. 무소유를 가르친 법정스님의 책을 비롯하여 무엇이든 편리하게 쓰고 버리는 우리의 작지만 무서운 습관이 이 지구를 죽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불편한 진실에 관한 책, 작은 집이지만 아름답게 꾸미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수납인테리어 관련 실용서까지. 그중에서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인상적인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단·사·리이다.

제목의 뜻을 풀어보면 단(斷): 끊고, 사(捨): 버리고, 리(離): 이별하라.

참 제목이든 내용이든 보면 쿨하다 못해 차가운 책인 듯하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한마디로 여느 실용서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면 좁은 집을 더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버리십시오”라고 말 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우임? 기껏 돈 들여 사다 모은 것들을 버리라니? 그것은 너무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 있는 것을 막 버리는 것도 환경에도 좋지 않다고 떼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다. 물론 여태껏 사 모은 것을 버리기란 정말 아깝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단지 좁은 집을 넓게 쓰기 위해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물건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물건이 없어야 할 곳은 비워두는 게 에너지의 흐름에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기(氣)’ 나 ‘에너지’ 의 흐름은 사실 동양의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가 굳이 동양사상을 깊이 믿거나 그것을 즐기지 않는다 해도 살아 있는

우리들 주변에는 항상 생생한 기운이 흐른다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는가? 그렇기에 기체조나, 요가나 명상, 뇌 호흡과 같은 실천법들도 우리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책이야기로 돌아가서 단사리의 목적은 단순히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물건을 치움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것으로 즉, 물건에게 부여했던 공간과 에너지를 다시 되돌려 놓자는 것이다. 좋은 기운과 에너지는 결국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욕심으로 쌓아둔 입지 않는 옷, 답지 않는 이불, 사용하지 않는 도구 등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욕심이나 소유욕으로 쌓아 두고 살았던 것들을 치우고 나면 그곳에 빈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나머지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생긴다. 즉, 내가 생활하는 주거 환경이 한결 쾌적해 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생활하는 나를, 스스로를 대접하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 이런 버리기가 습관이 되면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남들이 사니까, 그저 갖고 싶어서 사는 물건들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현명한 소비생활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버리기는 무조건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물건이 있어야 할 곳으로 버리는 것이다. 즉, 내게 쓰임이 다한 물건은 그 쓰임이 필요한 곳으로 가져다주는 것이다.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재활용센터라든지, 그것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주게 되면 내가 버리는 그 물건은 밖으로 나아가 더 큰 생명력을 지니고 돌게 된다. 이것이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글로 읽으면 이렇게 쉽지만 정작 무엇 하나 버리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딱 두 가지만 실천하려고 하였고,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

첫째, 옷 정리이다. 사실 우리 집에는 내가 임의대로 버릴 수 있는 가제도구가 많이 없다. 그러나 내 옷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2년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은 모두 꺼내어 의류수집함과 지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늘 비좁아서 열어보기조차 싫던 옷장이 넉넉해지자 외출해서 돌아오면 그 곳을 걸어 바로 옷장에 걸어두는 제법 좋은 습관이 생겼다.

둘째, 신발 정리이다. 우리 집은 대식구인지라 식구들이 신발을 두 세 켤레씩만 내 놓으면 현관이 딱 찬다. 그나마 예쁘게 벗어 놓는 것도 아니고 한 짝씩 뒤집어지고 짹짹이로 이별하기 일쑤이다. 꼭 풍수 지리설을 믿지 않는다 해도 현관부터 엉망인 집보다는 신발이 가지런하고 드나들기 편한 집에 복이 깃들 것만 같아서 밤에 자기 전에 꼭 현관 신발정리를 한다. 가장 자주 신는 신발 한 켤레씩만 내 놓고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에 넣기! 현관부터 기의 흐름이 잘 되어 우리 집 전체에 좋은 기운이 충만할 것만 같다.

이제 새 학기이다. 무언가를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시점이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단사리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한 아이가 집에 뛰어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어던졌다가 다시 돌아가서 신발을 정리하던 광고가 떠오른다. “빠르게 키우는 것 보다 바르게 키우고 싶습니다.”라는 카피가 마음에 참 오래 남는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가 책상정리를 하고 필요 없는 종이문치를 버리는 가장 작은 단사리를 실천한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보고 따라할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작품명 : 말 ♪ 말 ♪ 말 ♪



말 ♪ 말 ♪ 말 ♪

나의 손은  
언제나  
고운 꽃으로  
말 ♪을 피워내고  
말 ♪을 달리고  
말 ♪을 잠재우는  
따뜻한 가슴을 만들어 간다.  
그런 여유와 끼를 부리는  
나는 분명 행복한 사람이다.



송 정 희

- 한 해 김해 장유유치원 원장  
- 제29회 대한민국미술대상전 특선



#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시행

## 5세 누리과정은

- 만 5세아 교육 · 보육 내실화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 공통과정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 · 인성 교육 강조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 1일 운영시간 3~5시간 기준
- 학부모 부담 경감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만5세아 가정 교육 · 보육비 지원)

## 달라지는 점

주요 내용	
2011년도	2012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교육과정 (만 3,4,5세 수준별 교육과정)</li> <li>▶ 소득하위 70%이하 만 5세아 가정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유치원 : 월17만7천원</li> <li>- 공립유치원 : 월 5만9천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세 누리과정</li> <li>- 3 · 4세 교육과정</li> </ul> </li> <li>▶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만 5세아 가정의 교육 · 보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액 연차적 인상</li> </ul> </li> </ul>

